

야고보서는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강조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믿음은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믿음과 매일의 실제적인 삶을 통합하고 있다.

I. 저자

저자는 1장 1절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라는 표현으로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일반적이었다, 신약에는 “야고보” 라는 이름이 적어도 5명이나 나와 있다. 그 중 2명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들은 (1) 세베대의 아들 (약 1:19), 야고보는 사도요한의 형제이고 (막 4:21),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전 주후 44년에 순교했다 (행 12:12), (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막 3:18), (3) 작은 야고보 (막 15:40), (4)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다대오)는 사도이었다 (눅 6:16).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본다. 이유는 이 편지의 언어가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의 연설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야고보는 복음서 (마 13:15; 막 6:3)에 2번 언급되어 있으며, 모두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불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있었던 것 같다 (행 1:14; 2:4). 베드로가 팔레스틴을 떠났을 때 (행 12:17),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에 쓰인 헬라어가 야고보와 같은 갈릴리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세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야고보가 코이네 (“일반적인”) 헬라어에 숙달할 기회나 소질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서 로마 제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II. 기록 연대

유대인 역사가 오세푸스에 따르면,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했다. 야고보를 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편지가 A.D. 45년에 순교한 A.D. 6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기설 (주후 47-49년)과 후기설 (주후 60-62년) 이 있다. 전기설을 취한다.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 편지에는 이방인 신자들이나, 또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다. (2)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암시가 공관복음서와 언어적으로 거의 일치하지 않으며, 야고보서가 오히려 복음서의 기록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3) 야고보는 2장 2절에서 “교회” 라는 용어 대신에 (5:14), 2장 2절에 유대인 회당의 형태처럼 장로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조직을 가리키는 “회당” (NKJV: “모임” <assembly>)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4)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에 공의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III. 수신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한한다 (1:1) 12지파의 정의는 세가지 견해가 있다. (1) 안 믿는 유대인. 하지만 2:1은 수신인들이 성도들이다. (2) 모든 크리스천들. 그러나 신약은 지파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마 19:28; 롬 9:3-4). (3) 서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다. 베드로는 동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썼다 (벧전 1:1).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유대인 신자들이었다.

IV. 주제와 문학적 구조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야고보서가 간결한데다 지혜문학의 교훈적인 문체로 씌어졌기 때문이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구약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 편지에는 많은 주제가 담겨 있다.

초점	믿음의 시험		믿음의 특징	믿음의 승리		
관련 구절	1:1-1:13		1:19	5:7-5:19-20		
구분	시험의 목적	유혹의 원인	내적인 믿음의 회적인 증명	기다리며 인내함	고통받는 자를 위한 기도	죄를 대적함
주제	믿음의 진보		믿음의 행위	믿음의 능력		
	믿음의 반응		믿음의 실재	믿음의 재확신		

- 1) 원초적 교훈 (1-2 장) = 인내와 믿음의 실천
 - a. 문안인사 /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 / 행함과 믿음
- 2) 실제적 교훈 (3-4 장)
 - a. 말의 절제와 선행 (3 장) / 성도들의 경계할 일 (4 장)
- 3) 결론적 교훈 (5 장)
 - a. 불의한 부자경고 / 인내 권면, 맹세 금지 / 중보기도, 배교 방지

V.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행함이 있는 믿음, 신행일치
- 2) 핵심 절 : 1:4; 2:22
- 3) 핵심 장 : 2 장

VI.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

- 1) 시련 당할 때의 성도의 자세이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시련 (trial)을 피할 수는 없으며, 어떤 자세로 맞느냐가 중요하다. 야고보서는 성도가 시련 당할 때의 자세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인내하여야 한다 (1:12; 5:7-11).
- 2) 유혹의 원천은 인간 내부의 욕망이다. 욕망이 씨앗이 되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1:14, 15). 성도는 어떤 경우든 자신이 시험 당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된다.
- 3) 참된 경건의 표징이다. 야고보서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곧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해하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천이 없는 자의 경건을 헛되다고 한다. 참된 경건이란 환난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 4) 부자와 빈자에 대한 차별 행위 책망한다.
- 5)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
- 6) 혀 (tongue)의 사용과 믿음.
- 7) 세속화 (secularization)에 대한 경고.
- 8) 기도하는 생활과 믿음.